

# 전남교육청, '창의융합인재 양성 프로젝트' 성료

### 7개월 간 운영 '전남형 미래인재교육 아이콘' 자리매김 도내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 430여 명 대상 전남교육청 소속 15개 센터, 자발적으로 공모해 이뤄져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남의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7개월 동안 산하 15개 창의융합센터(발명, 수학, SW, 영재)에서 다양한 창의·융합적 주제로 프로젝트 학습을 운영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도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 4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프로그램은 (재)전남미래교육재단에서 지원하는 창의융합인재양성 프로젝트에 전남교육청 소속

15개의 센터가 자발적으로 공모해 이뤄졌다. 특히 각 센터에서 창의융합적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사업을 진행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섬의 역사, 문화, 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앱을 제작하는 '도(島)전! 앱 개발 챌린지', 소프트웨어(SW)와 AI를 융합한 '나도 할 수 있다! 머신러닝' 등 국어, 수학, 과학, SW·AI 등 교과 영역을 융합한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과 내용과 연계한 다양한 주제의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 있어 즐거웠고, 기회가 있다면 창의융합인재 양성 프로젝트에 다시 지원하고 싶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배우는 즐거움 뿐 아니라 여러 학교의 친구들과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소통하고 협업하며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이현희 미래인재과장은 "코로나 19로 교육현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미래도전 프로젝트를 통해 창의·융합교육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키운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남형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다양한 창의·융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 목포교육지원청, 타로상담 연수 실시

###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과 깊은 내면 대화 기법 향상 위해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갑수)은 4일 청내 화해·조정지원단 역량강화를 위해 목포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과 깊은 내면의 대화 기법 향상을 위해 타로상담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는 학교폭력 발생 시 화해·조정을 위해 관련 학생들이 내면의 어려움과 아픔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타로(Tarot)는 15세기 전반 이탈리아 북부지방에서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최초이다.

카드게임 뿐만 아니라 점술로도 사용되었다. 타로상담이란 상담과정에서 내면에 있던 고민과 감정, 무의식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자기표현을 위한매체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타로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타로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매체로 활용하면 학생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트라우마처럼 깊게 남아있는 상처들을 보듬어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 의미있는 시간이라고 하였다.

목포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센터장 최은순)은 화해·조정 지원단의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관계회복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연수를 제공하여, 화해·조정 지원단의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를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다.

목포=박정수기자

## 화순교육청, 중학교 무시험 입학 업무담당자 영상협의회 개최

### 중학교 배정 원칙 등 안내하기 위해 실시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식)은 4일 관내 초등학교 6학년 전체 담임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영상회의는 6학년 담임을 통해 2021학년도에 중학생이 될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학부모에게 중학교 배정에 대한 안내와 배정 원서 작성 방법, 중학교 배정 원칙 등을 안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중학교 배정원서를 쓰게 될 화순관내 초등학교 학생은 434명이며 일반배정과 특별배정으로

지원하여 학구와 추천에 의한 배정으로 중학교가 결정된다. 일반 배정 중 면단위 중학교 배정은 초등학교 학구에 의하여 배정되며, 화순읍 중학교 배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지체부자유자, 형제, 자매, 쌍둥이, 다자녀 등은 특별 배정되며, 읍 학구내 학생 중 제한적 공동학구제 배정을 희망할 경우 배정 지침에 따라 배정한다.

배정원서 작성은 초등학교별로 오는 12월 7

일부터 이루어지며, 12월 15일 마감된다. 또한 이사 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는 재배정 신청(2월 1일~15일) 후 중학교를 다시 배정받게 된다.

협의회에 참석한 화순초 김00교사는 다양한 상황과 사례를 안내받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유익한 소통의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최원식 교육장은 중학교 배정에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가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여 배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순=박순철기자

## 광주 수창초등학교, '디지털 역사관' 개관

### 오는 2021년 개교 100주년 준비 사업 일환

광주수창초가 오는 2021년 개교 100주년 준비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역사관'을 개관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99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광주수창초는 매해 늘어나는 졸업앨범, 교육활동 결과물, 각종 상장 및 트로피 등 방대한 양의 역사적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다.

광주수창초는 역사와 전통이 가득 담긴 기록물 등의 분실 및 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나온 100년, 앞으로 100년'을 담을 수 있는 '디지털 역사관' 구축을 기획했다.

광주수창초는 역사적 자료의 체계화된 분류와 정리, 보관을 위한 '디지털 역사관' 구축을 위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시교육청의 지원에 힘입어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DID)를 구입했고, 디지털화 작업 후 본관에 특별 공간을 마련해 '디지털 역사관'을 구축했다.

'디지털 역사관'에는 광주수창초의 과거를 엿볼 수 있는 낡은 졸업앨범과 교육활동 사진, 추억의 비디오테이프, 야구 명문을 나타내는 우승 상장 및 트로피 등 역사적 자료들이 시대별·분야별로 잘 정리됐다.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광주수창초 역사가 담겨있는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광주수창초는 '디지털 역사관'에 매년 자체 예산을 책정해 교육과정·행사·구축 당시 누락된 자료 등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

조인호기자

## 나주교육참여위원회, 정기회 온·오프라인 개최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길)은 4일 최진연 위원장(영산중학교 교장)을 비롯한 나주교육참여위원 23명을 대상으로 '제8회 전라남도나주교육참여위원회 제2차 정기회'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회의로 개최했다.

이 날 열린 정기회에서는 내년 나주교육정책의 주요 사업과 방향을 담은 ▲나주교육 2021 수립 계획(안) ▲2021년 나주교육참여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자문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나타난 주요 현안들을 극복하고 이에 대응하여 나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하였다.

